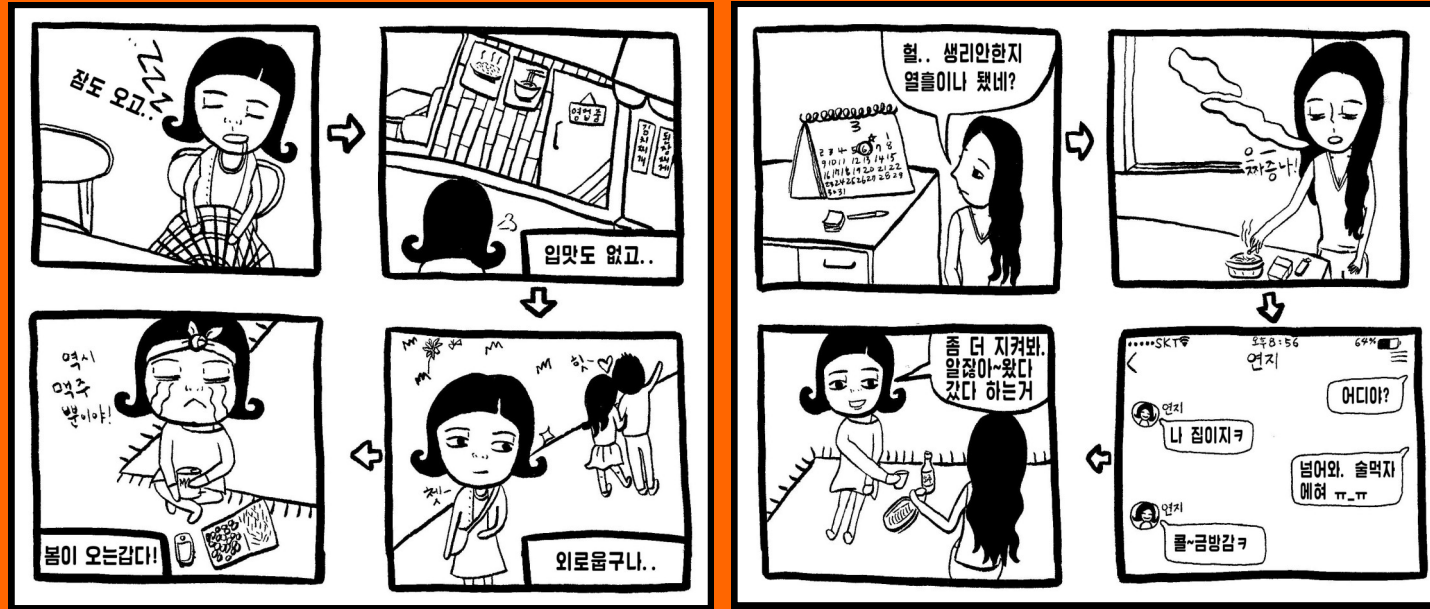


별 별 통 By 공 기

언니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 까



별별신문
ApRIL 4월
The ElevenTH 11호

14

★★ news paper



써야 할 돈, 쓸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돈
|영혼을 갉아먹는 돈과의 삼각관계

유형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Q 유형업소에서 일하면, 단속에 걸리면, 상담소나 심터에 연락하면... 내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나요?

A 나의 개인정보가 기록에 남는지,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1.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

- ★ 성매매 행위자로 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라는 것만 경찰청에 남되 5년만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 ★ 성매매 상담소나 심터에 연락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 기록이 남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정보는 문서로만 철저하게 보관하고 지원시설의 내부인 만이 관리하며 이 내용을 외부 사람(국가 정부 부처 포함)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기록이 남는 경우

- ★ 룸이나 다방에서 일하며 보건증을 만들었다면, 보건증 발급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검사 받았던 보건소에만 남아 있으며, 본인만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와 다르게,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려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유나]



| 발 행 일 자
2014년
4월 7일 월요일
| 발 행 인
별별신문
송.용.유.나.숨

별별신문은 유형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돈, 쓸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돈
|영혼을 갉아먹는 돈과의 삼각관계

2000년대 이후부터 20대 여성들의 과소비 행태를 지칭하는 '된장녀' 논란이 있어왔다. 그 이미지는 '명품백'과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든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언론 및 누리꾼들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여성의 과소비에 대한 고발에 묻혀 남성들의 씹씹이는 잘 거론되지 않지만, 비즈니스라고 포장된 남성들의 유형비·접대비의 과소비 규모가 더 크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반론이 가능한 이유는 이를테면 골프장과 룸살롱 출입을 하는 남성들의 수와 소비규모는 어마어마해서, 강남의 룸살롱 거리가 강남 지역 상권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된장녀'에 대한 비난은 여성 혹은 여성 소비에 대한 혐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별별신문은 이 글에서 여성/남성으로 나누어 누가 더 과소비 하는가를 가르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녀노소 혹은 경제적 계층을 떠나, 노동하는 현대인들의 소비규모와 욕구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치를 벗어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삶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1면에 이어서

사실 모든 소비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얼마나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과 우리가 갖고 싶고 소비하고 싶어 하는 돈의 규모는 일치할까? 또 욕망이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까? 그 욕망은 어떤 욕망이고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에 대해 '독립계재무상담사'인 최문희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행복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소유 ÷ 욕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공식대로라면 바라는 마음은 100인데 가진 것이 80일 때 행복은 20점이 부족한 80점이 된다. 행복점수를 100점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진 것을 100으로 늘리는 방법과 바라는 마음을 80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 애써 소유를 늘리는 것 보다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훨씬 쉽게 보이지만 현실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 욕망이라는 마음을 다루기가 여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집요하게 부채질 하는 소비사회다. 타인으로부터의 소외·경쟁·평가에 노출될 때 욕망의 꿈틀거림은 시작된다. 이에 압도돼 욕망에 굴복하면 삶은 피곤해진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욕망만이 소비의 굴레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치스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은 생계의 무거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의 생활비, 수술비, 카드빚 등 각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 타인의 시선에 의한 욕망에서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미 형성된 성산업의 경제구조는 온갖 채무관계를 만들어내서 여성들이 과중한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방해한다.**



몇 년 동안 룸살롱에서 선수로 일한 여성 T씨가 일을 시작한 이유가 가난은 아니었지만, 한 번 일을 시작하니 일을 그만둘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 술과 담배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남성들의 분탕질과 손찌검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 누구는 즐긴다고도 하고 혹자는 쉽게 돈 버는 일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일은 그 어떤 노동보다 멘탈 붕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다. 이런 사정을 가진 여성들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과연 단순한 과소비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과연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특히 유흥 시장 안에서 '내 경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생계의 부담이나 소비에 대한 사회의 부추김이 너무 과하다 못해, 나의 능력 밖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서부터 자유로움은 시작되지 않을까? 흔한 예는 아니지만 이태원 업소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일하고 있는 여성 L씨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적은 돈으로 조금씩 쓸 데에만 쓰는 지금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급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한다. 모두가 이 여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개인 경제의 문제가 내 탓만은 아니다'라는 위로와 함께, '내가 내 욕망의 주체'가 되어 소비를 통제하려는 부단한 노력에도 응원을 보낸다.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가난한 우리 모두 화이팅!

[숨]

초기 감기엔
드라이기로 목덜미를~
S P R I N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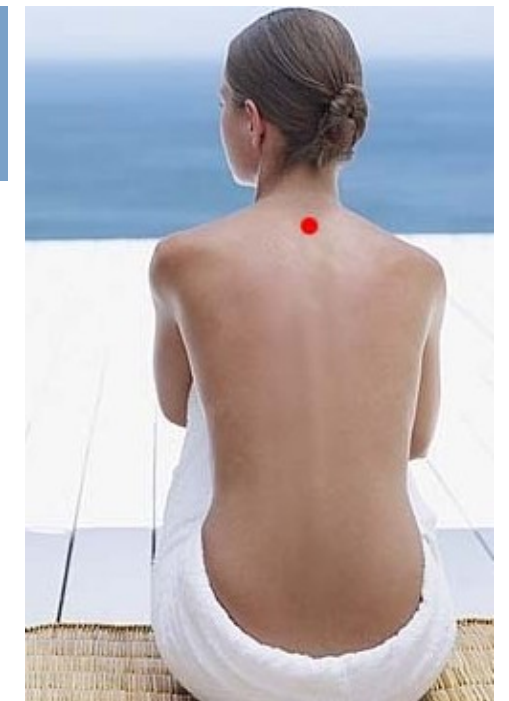
Ssong기자의
30초 건강 정보

봄입니다! 오늘은 봄에 관련된 건강정보를 풀어볼까 해요~ 낮에는 따사한 햇살이 비추지만, 밤에는 사정없이 온도가 떨어지는 봄! 저는 겨울보다 이런 환절기에 더 감기가 잘 걸리더라고요. 쌀쌀한 밤바람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드라이기를 들고, 목 뒤쪽을 따뜻하게 지퍼주세요. 그럼 으슬으슬한 기운이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 번 감기 기운을 쫓아냈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뒷목에 있는 대추혈! 이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 추위가 몸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초기에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추운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가고 대기 타고 있다가 뜨거운 바람에 녹아버리는 것이죠~ 아셨죠? 감기 기운 올 땐! 약부터 찾지 말고, 드라이기로 따습게~ 목덜미를 지져보아요~

[송]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별별신문 이용 안내 (원고료 지급)
유흥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으신 다양한 사연, 억울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고발 및 사연 보낼 곳 |
eloom2003@naver.com
010-8230-6279

이바닥뉴스
n e w s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 2월 28일자로 개정

보호법은 처벌법과 다르게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와 자발을 불문하고 보호, 지원하는 법률이다.

10년 만에 개정된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지원 강화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숙식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만 연장하도록 제한했던 기존 법을 1년 6개월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장애가 있을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보류중인 처벌법 개정

‘처벌’의 범위에 성‘매수’만 포함하여 성매수 및 알선 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처벌법은 아직 보류 중이다. 처벌법의 개정 방향은 스웨덴의 법을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성매매가 줄었고 그 만큼 성구매자와 성판매 여성도 줄었다고 한다. 이를 누군가는 성매매가 줄어드니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판매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졌으니 나쁘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처벌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시끄러울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지. 별별신문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머리 터질 것 같다.)

[유나]